

■ 3·4분기중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내림세가 둔화되었으며 토지가격은 전분기에 이어 오름세 지속

(전기말월대비, %)

	2005				2006				
	연간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주택매매가격	-2.3	-0.4	-1.7	-0.2	-1.0	-0.5	0.0	-0.5	0.0
주택전세가격	-4.1	0.0	-2.2	0.3	-1.4	-0.1	-0.2	0.1	0.0
토지가격	2.1	0.5	0.6	0.6	0.4	0.5	0.2	0.2	0.1

자료 : 국민은행, 한국토지공사

5. 금융

① 금융기관 여·수신 : 여·수신 모두 증가

- 3·4분기중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은 모두 증가세 지속
 - 예금은행 수신은 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비은행기관 수신은 우체국 예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기관 여신은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증가

② 기업자금사정 : 개선세 미약

- 3·4분기중 어음부도율이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상승
 - 다만 자금사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체수는 전분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금융기관 주요 지표 추이

	2005				2006				
	연간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금융기관수신 ¹⁾ (백억원)	60.3	-3.2	28.2	-13.2	25.9	11.7	-0.7	2.7	9.8
예금은행	15.3	-2.5	-6.3	-15.0	21.6	13.5	8.4	3.1	2.1
비은행기관	45.0	-0.7	34.5	1.8	4.3	-1.8	-9.1	-0.4	7.7
금융기관여신 ¹⁾ (백억원)	29.2	10.0	12.9	-4.0	10.2	21.0	10.0	6.5	4.5
예금은행	13.7	5.3	2.2	1.4	7.1	10.0	3.0	4.5	2.5
비은행기관	15.6	4.6	10.7	-5.4	3.0	11.0	7.0	2.0	2.0
어음부도율(%)	0.42	0.40	0.45	0.24	0.18	0.20	0.18	0.27	0.15

주 : 1) 기간중 증감액 기준 2) 지수(기준치 = 100)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의 문화

한라산 그 특별한 야성의 텃밭

시인 김순남

어디에 있든 산은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 존재의 가치가 충분하다. 한때 그토록 산이 좋아 무작정 산에 들어가서 온종일 있어도 지루하거는 커녕 어두워 돌아 올 때는 늘 미련과 아쉬움이 뒷덜미를 잡아끌곤 했었다.

그러하여 산은 내게 있어 언제나 흠모의 대상이었다. 호젓한 숲길이나 골짜기에서 털사철란, 혹은 바위떡풀 꽃송이를 내보이며 들려주는 산의 이야기는 삶의 찬가와도 같은 것이었다. 때로는 베토벤의 “월광”이나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드보르작의 “아메리카”를 듣고 있는 착각에 젖을 때 나는 한라산의 가장 완벽한 오르가즘에 빠져든다.

80년 후반쯤으로 기억한다. 20일간 내륙의 산행 길에서 얻은 여러 형태의 모양과 빛깔의 산들은 여태껏 두고 곱씹어도 여전히 금방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는 듯이 알싸함과 상큼함 같은 게 묻어난다. 조각품을 전시해 놓은 양 아기자기하게 솟은 바위 봉우리들로 가득한 설악산, 반듯한 시대정신이 날카롭게 빛나던 고정히 시인을 흠쳐간 지리산, 그리고 선비의 기품이 추상같이 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오대산과 태백산, 학문의 깊고 그윽한 도량을 빼어 닮은 주왕산 등 모두가 저만의 고유한 품성과 매력을 지니고 한술밥의 식술인 양 반갑고 다감하였다. 이런 신선한 만남

에 취하여 더러 욕심낸 것이 발가락 사이가 부르르 뜨기도 하였지만 분명한건 책으로만 역사를 읽는 게 아님을 산들은 오감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기에 반하여 중국의 천자산 자연보호구나 화산은 우선 기골이 장대하고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여 냇을 잃고 기가 막혔다. 그러다보니 산은 고작 산으로만 보일뿐 사람에게는 너무나 멀어 유령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그 신비스러움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풍경에 아! 하고 터져 나오는 탄성마저 천길 낭떠러지에 곧두박질쳐버릴 만큼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의 기세에 메아리 같은 건아에 얼씬도 못할 지경이었다.

신기에 가까운 풍광에 질겁한 채 하루해가 다 넘어가도록 산속에 있었건만 무엇을 주고받고 나누었는지 도무지 잡히는 것이 없었다. 험박에 가까울 만큼 치솟은 봉우리들은 너무도 도도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서서 마치 나는 있어도 너는 없고, 너는 있는데 나는 없어 꺾이지른 벼랑만 있고 소통을 이어주는 능선은 없었다. 그런 게 무슨 산이야, 산의 생명을 느낄 수 없고 산의 숨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는 산은 유령의 산이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탈에서 자신의 길이 보이 듯 이 땅을 벗어나서 돌아보니 내가 살 부비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산

은 얼마나 인간적이던가? 또한 얼마나 살갑게 등 내어주고 사람이 그 등에 기대어 평안을 꿈꾸게 하였던가가 눈에 들어왔다. 새삼 이 나라 이 땅의 크고 작은 산들이 코끝이 찡안 해지도록 미덥고 고마웠다. 더군다나 조석으로 드나들어 성가시게 하여도 항상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 듯 포근함을 주고 때로는 부산한 삶에 치어 거처리진 맥박을 끌고 가면 애처로이 쓰다듬어주는 한라산은 산중에 산이요, 산중의 어머니가 아니던가. 그 외형도 풍만하고 부드러워 일찍부터 어머니와 같은 산이라 일컬었다.

겉보기엔 드러내 놓을 것 없는 밋밋한 능선 하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라산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식생을 거느리고 있는 산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보아온 한라산은 다른 어느 지역,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여 주지 못하는 각양각색의 나무와 풀꽃들이 오밀조밀 어깨를 맞대며 성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야성의 텃밭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식물의 보물창고라 불릴 정도로 사시사철 푸르고 싱싱한 숲 파도와 함께 꽃바람 꽃물결로 생명의 환희로 넘치는 꽃노래를 타고 들어 가보면 안다. 이런 순수 야성의 생명체들은 다 어떻게 이 조그만 섬으로 건너올 수 있었을까? 한라산 고유의 특산종은 어떻게 무슨 꽃으로 피고 있는 것일까? 얼마만큼의 꽃 가족을 번성시키고 또 어떤 희귀종을 낳아서 숨겨놓고 있는지, 그 내력을 지금도 고스란히 꺼안고 있는 것 또한 한라산의 특별한 매력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은 호들갑스럽지 않고 꿈길처럼 잔잔한 아름다움으로 펼쳐진 제주도는 전체면적 1,829km에 타원형으로 섬 중앙에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삿갓모양으로 솟아 있다. 정상 분화구 백록담을 중심으로 368개

의 오름들이 해안까지 봉긋봉긋 솟아있으며 이탈리아의 아트나 산보다 168개나 더 많은 세계 최대의 오름 군락으로 손꼽힌다. 이들 오름은 특히 각기의 독립체로서 기생화산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화산활동에 의해 한라산이 30만년에서 20만년 사이에 형성되고 뒤이어 20만년에서 25만 년 전 사이에 오름이 태어났으며 30여회에 걸친 용암분출로 제주의 지질표층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덮이게 된 것이었다. 그 후 오랜 세월동안 갖은 풍상을 이겨내고 열대, 온대, 아고산대 등 다양한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한라산은 구상나무와 쯤고채나무, 분단나무, 종가시나무 등과 가시영경귀, 한라구절초, 한란 등 특산 식물과 온갖 야생초들을 품어 안고 오늘의 싱싱하고 푸른 산으로 가꾸어지게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라산과 오름은 사람과 살을 맞닿으며 애뜻한 역사를 함께 해왔다.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들, 여기 섬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남이 없다. 모두가 삼촌이요 권당이다. 서로가 살붙이로 여기며 살았던 그 의식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거친 바다와 화산회토의 척박한 땅을 숙명처럼 떠안고서도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사는 “수놓음”의 그 아름다운 정신은 또 어디에서 온 힘의 원천이었을까? 오름에 기대어 살다가 오름에 묻힌 사람들의 숨결이나, 처절했던 4.3의 이야기를 한라산은 갖가지 풀꽃들을 앞세워 오롯이 들려주고 있다. 끈고한 삶 속에서 구차히 바느질당한 아픈 역사의 맥박을 느껴보는 데는 야생초 꽃 말고 또 있으랴 싶다. 그 뿐인가 아름다운 풍경으로도 더 할 나위 없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라산을 숭배하고 섬기며 목축을 생업으로 삼고 오름에서 살았기에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제주도인 셈이다. 처음제주도는 한반도와 중국, 일

본과 육로로 연결된 환경이었으나 빙하기에 대륙의 동식물이 유입됐다. 간빙기 때 섬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단절된 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아열대와 온난대성 기후



들 때마다 시리는 귀한 보석을 얻어오곤 한다.

와홀 어디 농원 길
어머니의 다리품
절뚝이며 가는 길
내 밭아보기 전에는
흔들리지 않으리 .

조건에 따라 희귀한 특종식물인 한란, 돌매화나무, 솜다리, 물부추, 솔잎난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멀리 남쪽 바다 한 가운데 떨어져 있게 된 섬 한라산에는 태고의 원시로움 그대로를 간직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삿갓형의 완만한 겉보기와는 달리 고도에 따라 갖가지 다양한 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여름에 숲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보일 정도여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십상이다. 난대성 양치식물이라든가 한대성 고산식물, 한라산의 허파라 할 꽃자왈과 더불어 계곡이 잘 발달되어 사철 푸른 천연림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다. 또한 다양한 기후조건에 따라 아열대성 파초일엽 같은 식물이나 상록활엽수종인 종가시나무, 굴거리나무 등과 함께 때죽나무, 비목 같은 낙엽활엽수가 한라산을 계절에 맞춰 더욱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온대성 식물인 십자고사리, 관중 등이 폭넓게 자라고 있어 마치 열대지방의 어느 산 숲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와 함께 물부추 같은 세계적인 희귀종과 시로미, 한라구절초, 제주달구지풀, 한라솜다리, 등의 특산식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제집 기구듯 산을 지키며 살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여건과 환경에 의해 2,000여 종이 넘는 식물들이 한라산을 가득 채우고 있어 가회 식물의 보고로서 나는 이 보물창고를 드나

사는 게 만만치안아
가슴 저미는
때 바람이 물려와도
싱겁게 드러눕지 않으리 .

저 혼자 메아리 울리는
달빛을 움켜쥐고
아혼아흠 골 ‘말없는 사원’을
걸어가기 까지는
더 이상 내려서지 않으리 .

- 돌매화 전문 -

설한풍 휘몰아치는 북벽 꼬트머리 바위에 붙어사는 “돌매화”는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정신문화의 정체성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숙연해지는 꽃이다. 더욱이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 식물로서 멸절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한란, 나도풍란, 지네발난, 죽백란, 대홍란, 풍란, 어름난초, 등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다. 이들이 사라지는 건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다.

언제부터 우리 인간은 이들을 확대하고 폭행을 일삼으며 그도 부족하여 마구 뽑아다 팔아넘기는 행태를 부리며 배반의 등을 돌렸단 말인가. 한라산 고도를 따라 난대상록활엽수림대를 차지하고 있는 동백아, 굴거리야, 구실잣밤 나무와 그 외 90여종들이 무슨 일 있

어도 그 자리에 버티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온대낙엽활엽수인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가막살나무, 제주조릿대, 신갈나무들이 800~900m 그터에서 꿈쩍 말고 살아라. 또한 아한대(아고산대) 구상나무 군락들이!



게 분포하고 있는 한라산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가장 잘 보존된 난대상록활엽수의 원형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텃밭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교과서라 할 만큼 우리나라 식생 연구의 보고라 하겠다.

빨간 열매 달콤한 주목 침엽수야 함께 추위를 마주하더라도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 관목 들한테도 알려라 눈향나무, 산철쭉나무, 진달래, 시로미야 푹푹 뭉친 군집에서 밀리면 다 죽는다, 한발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악착같이 살아라. 외래종 개민들레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더라. 제주도민들 한자리에 다 모여 목청이 찢어지도록 고향을 지른다면 너희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한심해지기도 한다.

한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비롯한 제주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양치식물, 피자식물, 나자식물 등 모두를 합하면 총167과에 770속 1,849종과 변종121에 50품종 까지 1,990종에 이른다. 그중에도 78종 69변종은 한라산 특산식물이다. 해안에서부터 한라산 정상까지 수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는 이들 식물군에서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교목과 검은재나무, 황찰나무, 붓순나무 등의 아교목, 관목 등 기타 희귀 수종들은 울창한 천연림을 형성하여 자연경관에도 큰 몫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용, 약용, 관상용으로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는 식물들에게서 미래 제주의 경제발전의 커다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고관초 새우란 초령목 등 희귀멸종위기의 식물과 담팔수, 소귀나무, 돈나무, 참가시나무들이 고르

무엇보다도 제주도가 유일한 것으로 자생하고 있는 '제주고사리삼' 뿐만 아니라 감자란, 약란, 새우란류들이 자라고 있는 곳자왓은 한라산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용암과 용암의 틈새 또는 암피와 뒤엀킨 바위 위에 형성된 습지로서 오랫동안 인간의 간섭의 받지 않고 생태 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들 곳자왓은 한라산 동서남북에 걸쳐 동백동산 또는 김녕곳자왓과 저지꽃, 청수꽃, 서광꽃이라 불리며 이들 지역에서는 풍부한 생물종이 생태적다양성을 연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상나무는 세계적으로 한라산이 가장 많은 분포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좁고채목과 나도 옥잠화 등과 함께 한라산 아고산대의 대표적 식물이다. 그리고 눈 속에서 고고하게 피어난다는 "에델바이스"로 안 한라솨다리는 한때, 동반 기념품으로 채취되는 수난을 겪게 되면서 지금은 멸종위기에 놓여 환경부지정 보호식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라개승마, 한라구절초, 한라송이풀, 애기술나물, 섬바위장대 등이 고산화원선작지 앳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있으며 백록담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청아한 생애를 유숙하고 있는 한라돌창포, 한라부추, 김의 털, 한라사초 등도 한라산만의 특산물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식물들이다.

찬 이슬 또르르 굴리며
한 아름 바람 꺾어들고
산을 내려 왔지
버릴 것 다 버리고
여든일곱 내 어머니의
아릿한 눈빛너머
흰 옷의 신부로
있고 싶었지
아스팔트 위를
황량하게 떠도는
자동차 바퀴들을
순하디 순한 꽃잎의 이름으로
덜어주고 싶었지
- 한라구절초 전문 -



그런 호사도 어디에요
그만하면
내 영원한 잠마저
흔들어 깨워
오락동 웃چه오름
언덕을 기꺼워
내려서겠습니다.
- 설앵초 전문 -

누구에게 주려는지 '행운의 열쇠' 또는 '행복의 계단' 이란 꽃말을 들고 나온 '설앵초'가 어두운 나무그늘 아래서 부끄러운 듯 서있다. 물망초와 닮았지만 그보다는 작은 꽃 모양새가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려는 언어처럼 새빨간 꽃송이를 기다란 초록 꽃대위에 올려놓은 것이 앙증맞고 귀엽다.

이같이 그늘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꽃들이 있어 한라산에는 피부역할을 하는 푸르고 싱싱한 나뭇잎과 더불어 속살적인 풀꽃들이 산의 맥박처럼 팔딱거리며 푹푹 채우고 있다.

한라산에는 지리적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독특하고 고유한 식물분자가 나타나면서 제주특종식물인 좁쳐녀이끼를 비롯하여 구름체, 섬잔대, 한라고들빼기 등 42과 69속 87종 3변종 3품종이 한라산의 포근한 기슭살을 헤집으며 연한 실핏줄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그 면적에 비하여 제주산머들, 섬매발톱나무, 좁향유, 두메대극, 등 특산종이 많다는 점은 우선 고산식물로서 빙하기 유존종이 장기간에 걸친 격리와 기후변동 등 특수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종 분화의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난 때문이며 제주 섬의 연륙설을 증거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고 식물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한라산에 자생하는 고산식물의 특징은 간빙기에 고립되어 살아남은 종들이 안정된 집

한라산 신령님이 기거하시는 영실계곡 병풍 바위 꼭대기에서 큰수리취의 호위를 받으며 낮은 키로 바람을 뚝뚝 꺾고 있는 한라구절초는 처음엔 그냥 쑥부쟁이인줄로만 여겼던 때가 있었다. 또 한편 탐라계곡을 지나다 만난 설앵초는 마치 물망초가 제 설움에 울다 지쳐 빨갱게 변한 게 아닌가 할 만큼 곱고 고운 꽃이었다.

마음은 이미
수만 말의 콩을 볶았다지요.
사랑도 미움도
전농로 왕벚나무 아얀 꽃비 날리 듯
지우고 나면
그대 마음에 깊은 강물로
흐르고 싶었다지요.

그래요
탐라계곡 푸른 이끼를 덮고 서는
작은 꽃잎의
발그레한 외로움도 괜찮지요

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간혀있는 환경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상당한 면이 량을 거쳤기 때문에 학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자생특산식물들은 대부분 인간의 폭력적 간섭에 의해 멸종되거나 절멸의 위기를 맞은 것들이 대다수여서 이름으로나마 불러모아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라산에 분포하고 있는 멸종위기1급의 범정보호식물로 지정된 돌매화나무, 만년콩, 한란, 죽백란, 나도풍란, 풍란 6종이고, 2급의 한라솜다리, 순채, 으뜸난초, 죽절초, 자주땅귀개, 파초일엽, 지네발란, 제주고사리삼, 삼백초, 물부추, 갯대추, 솔잎란, 개가시나무, 대홍란, 갯대추, 무주나무, 백운란, 박달목서, 17종 그중에서 나도풍란은 이미 생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도가 되고 말았다. 이 외에도 특산 희귀식물로서 피뿌리풀, 실꽃풀, 소귀나무, 겨울딸기, 검은딸기, 왕초피나무, 백서향, 산호수, 검은재나무, 머리꽃나무, 갯취, 한라돌찌

귀, 섬개벚나무, 구상난풀, 덩굴용담, 한라돌창포, 기는범꼬리, 섬매발톱나무, 흰땃딸기, 시로미, 들쭉나무, 설앵초, 한라송이풀, 좀민들레 등 22과 32종이 한라산에만 있는 야생식물들이다. 단일지역에 이만큼 다양한 기후조건과 다양한 식물군을 거느리고 있는 곳은 없다.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자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자원의 가치를 미래의 비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들 중에는 시베리아나 몽고 중국대륙의 극고산지대를 탈출하여 기어이 한라산 자락에 뿌리 내리면서 새롭게 고유한 종을 번식시켜 울울창창한 세상을 바다위에 띄우고 더불어 사람과 흥망성쇠를 함께해온 생명체들이다. 그러기에 한라산은 인간의 생활에서 아주 특별한 야성의 텃밭인 것이다.

그 텃밭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고 돌보지 않는다면 안된다. 인간의 힘 만으로는 자연재해를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그렇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연구원 내부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담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는 의견수렴 과정이오니, 연구원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2006년 9월)

· 요약 ·

- 육지부·내수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지역 경기는 2004년 10월(잠정) 이후 소순환적 경기회복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음. 특히 2005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06년 4월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9월 현재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 및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하락하였음.
- 제주지역 경기선행종합지수는 2005년 5월 이후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06년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전월대비 상승하였음. 경기전환점을 예측하는 보조지표로 사용되는 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 또한 전월보다 다소 상승하였음.
- 9월 현재 제주지역 경기에 있어 생산부문에서의 추세순환계열 기준 농산물소득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이는 2006년도산 감귤가격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경제구조를 볼 때 감귤가격의 하락은 올 하반기 경기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경기에 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경기선행성을 나타내는 건축허가면적인 경우 하락폭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있어 향후 제주지역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산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임.